



부안군 농촌지도자·생활개선연합회, 하계연찬 교육

부안군 농촌지도자연합회(회장 정병만)와 생활개선 연합회(회장 박양순)는 지난 5일 변산면 모향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우애, 봉사, 창조'의 강소농 육성으로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슬로건 아래 권익현 군수, 이원택 국회의원, 김광수 군의장 등 농촌지도자 최규영 회장, 도 생활개선회 심명순 회장 12개 읍면 500여 회원이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하계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갑수복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에서 소득향상과 농업발전이 기여하고, 여성농업인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농촌에 활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회원들이 준비한 난타공연, 색소폰, 오카리나연주,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방송인 홍석우씨의 진행으로 읍면별 노래자랑 등 회원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농업인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융복합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우뚝 서기를 바라며 각 지역의 핵심 리더분들께서 역할을 향상시켜 나가시면 부안농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을 격려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재난의료지원팀(DMAT) 재난 훈련’

전북대병원, 대응 능력 제고...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 확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5일 지진으로 인한 컨벤션 건물 붕괴 및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재난응급 의료 대응 훈련'에 재난의료지원팀으로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전라북도 재난의료 대응 기관들의 재난 상황 초기의 대응 역할 및 현장에서 전문적인 의료지원에 대한 응급의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에서 6.5의 강진이 발생해 컨벤션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하여 약 30여명의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했다.

훈련에는 전북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외에 △덕진소방서 구급대원 △완산소방서 구급대원 △전주시 보건소 신속대응반 △중앙응급의료센터 전북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각 단계에 맞춰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전북대병원 응급센터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가 빠르고 효율적인 재난의료 대응을 위해 재난의료 전담병원으로서 공공의료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그간의 교육과 도상훈련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북대병원 재난의료 책임자 윤재철 교수는 "전라북도 권역의 재난 거점병원인 전북대병원은 실제 재난 현장과 유사한 훈련을 진행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과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등 지자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임실호국원, 2년 6개월여 만에 일일합동안장식

국립임실호국원(원장 김지현)은 지난 4일 오후 1시30분 호국원 제2충령당에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故 육군상사 오재덕 등 2위의 국가유공자를 모시고 일일합동안장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일일합동안장식은 현충과정이 행사를 주관했으며,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헌화, 헌시낭송, 묵념, 영현봉송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모셨다.

일일합동안장식은 유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출상일 또는 안장희망일에 관계 유가족들이 참석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예우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엄숙하고 경건한 의식행사이다. 한편 한 유가족은 고인이 되신 고인께서 전우들과 함께 호국의 성지인 국립임실호국원에서 편안히 지내시길 기원하며 안장식행사에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국립임실호국원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에도 개별안장 및 무연고 유공자 참배 등을 꾸준히 해왔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 중단되었던 일일합동안장식 행사를 재개한 것은 뜻깊다"고 밝혔다. /임실=전종영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오현 스님' 글씨 현판 상정지구 기증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 이하 재단)에 인제 백담사 주지 삼조스님이 오현스님의 글씨 현판을 기증해 비어있던 태권도원 상징지구 명인관에 화룡점점으로 빛나게 됐다.



앞서 국립태권도박물관 백담사에서 만난 부처님 특별전 당시 태권도원을 방문했던 삼조스님이 상징지구를 둘러보던 중 명인관 출입구에 비어있는 현판자리에 직접 오현스님의 현판을 기증하겠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현판은 고(故) 오현스님이 쓰신 '운문주고삼문(雲門註高三門)'으로 운문스님의 주고삼문이라는 법어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글씨를 쓰신 오현스님은 설악산 신홍사 백담사 조실과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의원을 지낸 한국불교문화의 대표 시조시인으로 '베놈의 삶'을 강조한 뜻에 따라 현판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오용환 이사장은 "오현스님의 귀한 자필 현판을 기증해주

신 인제 백담사 삼조스님의 깊은 뜻에 모든 태권도인들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며 "상징지구의 의미가 더욱 깊어 진 만큼 세계 태권도인들의 중심지로 구상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증된 현판은 10월 국제대회에 맞춰 태권도인들이 함께 한 가운데 거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시장,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성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와글와글시장가요제'가 지난 4일 진안고원시장에서 열렸다.

장날에 맞춰 진행된 이번 시장가요제는 전춘성 진안군수,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및 지역의원, 상인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진안군과 전라북도가 후원하고 전라북도시장상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와글와글시장가요제는 코로나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미디언 황기순씨의 사회로 진안군민들의 노래자랑이 진행되었다.

강민주 서운 서주경, 안성준 등 초창가수의 축하공연과 다양한 경품행사가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상인들과 군민들이 모처럼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고원시장이 방문객도 늘어나고 활성화되어 더욱 발전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고원시장은 하반기부터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 진안고원시장 특화 대표 먹거리 개발, 진안군 내 관광자원과 문화를 시장과 연계한 투어코스 개발, 농특산물 상생장터 운영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신태인농협, 농촌지원단과 돌봄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정읍 신태인농협(조합장 김성주)은 농촌현장지원단과 함께 지난 30일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이번 봉사활동은 취약농가 복지향상 차원에서 주택의 노후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돌봄 대상자 2가정(신태인 환촌택, 갑곡 정영욱)의 도배와 장판, 싱크대를 교체하였다.

대상지는 접수된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현장지원단의 실사로 결정되었다.

신태인농협은 NH농협 정읍시지부(이재연 지부장), NH농촌현장봉사단과 함께 작업에 일손을 보태고 생활용품도 지원했다.

현장을 방문한 김성주 조합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취약 농가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주군 지사보협의체 구성, 복지사각지대 발굴 첫발

완주군이 지역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제4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했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제4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금융·기업인·자원봉사자 등 지역복지증진에 열의를 가진 다방면의 군민 341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이다.

제4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지원 연계,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민·관 협력 특화 사업추진 등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되며, 다양한 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발굴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13개 읍·면에서는 신규위원 위촉식을 통해 위촉증을 수여하고, 읍면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위촉식에서는 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을 되짚어보고 하반기사업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토의할 계획이다.

유태대 완주군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민·관이 함께 앞장서야 하는 만큼,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완주군의 세심한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완주군을 만드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남원시, 제316차 안전점검의 날 진행

남원시가 지난 4일 민방위 대피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를 테마로 제316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내 공공용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 및 보강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안전재난과 및 동 지역 재난업무 담당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민방위 대피시설 29개소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다.

점검에서는 안내 및 유도표지판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자 교육여부 및 행동요령 비치여부 등 전반적인 대피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안내 및 유도표지판 미흡 시설의 경우 신속히 업체를 선정해 7월중 보강 완료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효지2동 지사협, 생신상차림·밀반찬 나눔 봉사

전주시 완산구 효지2동(동장 김혜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현오)는 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림'과 '사랑앓 밀반찬 나눔' 사업을 5일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조리해 만든 밀반찬을 홀로어르신 및 저소득 세대에 20가정에 전달했다.

협의체는 또 생신을 맞이한 홀로 어르신 2가정을 방문해 케이크와 미역국, 밀반찬, 과일 등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최현오 위원장은 "협의체 회원들은 효지2동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이웃돕기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나눔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화산1동 지사협, 홀몸 어르신 영양삼계탕 지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동장 유은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현준)는 5일 관내 홀몸 어르신 100명에게 영양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생단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한 이날 행사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했다.

이현준 위원장은 "우리 중화산1동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사회보장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발굴 및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제시, 기초생활수급자 일제 방문상담 완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실태 변동사항과 복지요구 파악, 지역사회 적응 등 종합적인 상담 조사를 19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합동으로 4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하였다.

이번 상담은 기초생활수급자 6,269세대 8,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건강 및 주거환경 점검, 거주 여부, 가구구성원 변동사항,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재산, 안전 및 복지요구 파악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 기간 중 파악된 위기가구나 복지 욕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비스 및 긴급지원, 민간지원 등을 연계하였으며,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대상자들의 심리적 고립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로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을 위한 상담에 중점을 두고 읍면동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였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상담은 찾아가는 복지 실천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이고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근 기자